

정유·화학 비수기 앞당겨 찾아온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도 가격견인 어려워 ... 금호석유화학·휴켄스 주목

동양증권이 정유·화학 업종의 비수기 사이클이 앞당겨지고 있다며 주가 단기조정에 대비하라고 8월20일 경고했다.

황규원 동양증권 연구원은 “주요 석유화학기업의 현금마진 상승세가 8월 초 꺾인 뒤 2주 연속 소폭 조정을 받았다”며 “7-8월 성수기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3년에는 추석연휴가 9월 중순에 자리 잡고 있어 화학제품 비수기가 예년보다 빨라질 것”이라며 “리비아 파업과 이집트 내분 등 중동의 위험 확대도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크게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8-9월 정제마진 위축으로 국내 정유기업의 영업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에 대비해 주가 조정 시기에 4/4분기 영업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금호석유화학과 배당 매력 종목인 휴켄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20>